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 시동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도, 추진준비단 구성... 어제 첫 회의 열고 본격 논의 올해 말 준비계획 수립·지원기구 설치 등 활동 박차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025년 개최되는 제32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의 유치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APEC 정상회의는 총 21개국 회원 정상들이 참여하는 아시아,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경제성장과 번영을 목표로 설립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최고회의로, 2025년 우

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12일 제32차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제주 유치를 위해 구성된 제주유치 추진준비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준비단은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유치 준비 활동을 뒷받침할 실무 태스크포스팀으로,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을 단장으로 제주도 본청(경제정책과, 관광정

책과)과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컨벤션뷰로의 관계자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APEC 정상회의의 유치를 위한 준비 자료 수집과 행사유치를 위한 도내 여건 분석 및 대응, 네트워킹 연계, 홍보 및 유치활동 전략 마련, 제안서 작성방향 및 대응 등을 위한 행정지원 체계로 운영된다.

일자리경제통상국 내 회의실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추진준비단은 APEC 제주 유치와 관련된 중앙 및 타 지역 동향을 공유하고 단계별·연도별 준비 계획을 구체화하기로 는

의했다. 도는 이날 추진준비단의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으로 연내 APEC 제주유치 추진 준비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연차별 APEC 제주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 발족, 지원기구 설치, APEC 개최 최최저 제주홍보 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2005년 APEC 정상회의의 유치 시 부산과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탈락한 아쉬움이 있었다"면서 "체계적 로드맵 방안을 모색해 반드시 2025년 정상회의의 제주유치를 성공해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코로나 확진자 방문이력 확인 "신속하게"

전자명부 앱 '안심코드' 출시 다중이용시설에 확대 적용



제주특별자치도가 13일 블록체인 기술 기반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어플리케이션 '제주안심코드' (사진)를 본격 출시한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안심코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방문 이력과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함으로써, 코로나19 집단감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다. 기존 전자출입명부(KI-Pass)와 달리 '제주안심코드'는 이용자가 업장에 부착된 QR코드를 찍는 방식으로 사업주와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사업주는 매년 자신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이용자가 또한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 본인인증 1회만 거치면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간편하게 출입을 인증할 수 있다.

특히 제주도는 출입자 명부 관리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름·전화번호와 같은 수집한 신원정보와 방문 이력은 모두 암호화된 상태로 별개

의 서버에 저장되며 일정기간 후(신원정보 8주, 방문 이력 4주 저장) 자동 파기된다. 또한 해당 정보는 확진자 발생 시 공식적으로 지정한 역할 조사관만 열람이 가능하다.

개인의 정보주권에 대한 높은 관심을 고려해 블록체인 기반 기술인 분산 신원증명(DID) 기술을 적용한 것도 특징이다.

도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도내 55개 업종 내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에 맞춰 다중이용시설에 '제주안심코드'를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이태원기자 ity9456@ihalla.com

문 대통령 "한미동맹 굳건함 확인" 바이든 "북핵문제 해결 긴밀 협력"

14분간 첫 통화... 의견 나뉘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전화 통화를 시작으로 바이든 정부와의 소통에 본격 나섰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4분간 바이든 당선인과 첫 통화를 갖고 한미동맹, 북핵 문제,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0년간 민주주의, 인권 등 공동의 가치를 수호하며 한반도와 역대 평화, 번영의 기반이 되어온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위해 바이든 당선인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 핵심축(linchpin)"이라고 하면서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이 매우 훌륭하게 코로나에 대응해 온 데 대해 문 대통령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 후 자신의 SNS를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당선인의 굳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 NSC 상임위원회 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관저 접견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전화 회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도 열었다. 상임위원들은 미 대선 관련 동향에 대해 논의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반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청와대·부미헌기자 bu8385@ihalla.com

"중환자·응급실 포화... 제주 의료환경 열악"

위성곤, 비경제부처 질의 "국립대병원 국고지원 개정을"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제주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국고지원 기준 개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위 의원은 이날 박백범 교육부차관에게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 가운데 사업비의 75%까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의 '독립치과병원'에서 '약소 국립대학병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 의원은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의 중환자실 가동률이 평균 80%인 반면 제주대병원은 95.2%로 전국 가장 높은 상황"이라며 "중환자실 병상 수도 국립대병원이 평균적으로 100병상당 7.2병상이지만 제주대병원은 100병상당 5.0병상"이라고 밝혔다.

위 의원은 또 "제주지역 응급실의

과파와도 심각한 수준이어서 내원환자수는 국립대병원 중 6위지만, 응급실 1병상당 환자수는 1331명으로 전국 2번째로 많은 상황이며 일반병상 수도 전국 지역별로 인구 1000명 당 일반병상수는 13.1개이지만 제주지역은 7.3개로 전국 평균의 56%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제주지역의 열악한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대병원이 교육부의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인 '교육진료등 증축사업'에 선정돼 중환자실 증설과 응급의료센터 증축, 감염병 위기대응 진료 시설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마저도 현재 국립대병원의 시설비에 관한 국고지원기준은 총사업비의 25%에 불과해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제주지역의 의료자치 수준을 개선해야 하는데 공감한다"면서 "관련 당국과 (지원 기준 개선에 대해)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국회·부미헌기자

겨울철 도로제설 통합 대응체계 구축

내달 1일부터 상황실 운영 노형·교래 전진기지 3곳 신설

제주특별자치도는 동절기 대체재난에 대비한 선제적 제설대응을 위해 도 중심의 전천후 통합 도로제설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설대책 사전대비 기간인 지난 10월 15일부터 제설장비를 일제 정비했으며 산간도로 경사도와 응달진 곳에 모래주머니 적치작업(지방도 18개 노선 2300개소) 등을

이달 27일까지 완료한다 12일 밝혔다. 오는 12월 1일부터는 동절기 제설대책 통합상황실도 운영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제주시 노형동과 조천읍 교래리에 제설 전진기지 3개소를 신설해 염수제조시설의 현대화와 도로제설용 차량정비, 제설제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제설장비고와 제설장고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로제설작업 시 제설차량 이동 시간 단축 등 현장대응능력 강화로 최적의 도로이용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은지기자

교원만 단체활동 지원... 보조금 지급대상 확대 추진

교원으로 한정된 제주도교육청 보조금 지급 대상을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제주도의회 정민구 의원(상도 1·2동)은 교육청 소속 단체활동 지원대상이 교원으로 한정된 것을 공무원과 교육공무직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현행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개정에 나섰다 12일 밝혔다.

아울러 보조금 사업의 범위를 교직원 전문성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

업과 교직원의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명확히 규정, 실효성 있는 보조사업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민구 의원은 "교육의 구성으로서 교직원단체 간의 사기진작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은 정민구 의원을 비롯해 이상봉, 강성의, 현길호, 박호형, 송창권, 홍명환, 고현수, 임정은, 송영훈, 김대진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는 27일 제38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의 1차 심사를 거친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임시주주총회 개최 안내

제주지방법원 2020비합106 판결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일시	2020년 11월 23일 10:00
장소	(주)한라에너지(서귀포시 일주동로 8281) 2층 사무실
안건	1) 사내이사 김용국 해임의 건 2) 사내이사 및 감사 보선의 건

2020. 11. 13

주식회사 행복에너지
주주총회 신청인: 김 영 탁

제주60+교육센터 | 교육생 모집 (제주해녀문화알림이 양성과정)

사단법인 느영나영복지공동체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 무료 취업교육을 통해 업무능력의 전문성을 갖추고자 제주해녀문화알림이 양성과정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구분	교육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모집인원
취업형	제주해녀문화 알림이 양성과정	11월~12월 중	20시간 총 4회	100명

* 출석 80%이상 수료 후 취업연계 가능
* 모집인원에 따라 교육 일정이 조기마감 또는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교육은 사단법인제주해녀문화보전회와 협력하여 진행됩니다.

【신청대상】 60세 이상 건강한 분
【신청기간】 2020. 11. 09. ~ 2020. 11. 20.
【신청장소】 직접방문접수 / 사단법인느영나영복지공동체 (제주시 용담로 128, 2층)
【상담전화】 742-0606

제주60+교육센터는 기업 맞춤형 양성 및 60+의 다양한 사회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고 사단법인 느영나영복지공동체에서 운영합니다.

사단법인 느영나영복지공동체

해외·육지 전문여행사

여행의 멋과 맛, 재미 모두 준비했습니다.

특가진행

6월~10월 까지

대형우등버스 1일 40만원 부터~ 중형우등버스 1일 20만원 부터~

여행품질과 가격비교 자신있습니다.

육지 전세버스 보유업체

미도항공·미도투어

위치: 제주시 용담이동(오라오거리) ☎713-1951
상암 유옥종 010-5015-1951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祚

누수탐지 가식, 청진가식 수도매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물당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